

빠/따/맞/던/시/절

김 혁/35세, 영화평론가

고등학교에 들어온 나는 씨클활동부에 바로 가입했다. 나는 국민학교 때부터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미술부에 들었다. 하지만 매일 수업이 끝나면 남아야 하는 미술반 활동 때문에 학업성적을 걱정한 부모님의 만류로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조직이었다. 나오기 위해서는 선배들에게 빠따를 맞아야 했다. 소위 '탈반 빠따'였다. 수십대를 맞은 후 나는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조직의 무서움을 실감한 것이다.

한학기를 그냥 지내다가 학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씨클룸을 찾았다. 이번엔 문예반이었다. 글을 쓰겠다는 나의 정열은 가장 악명이 높은 서클인 문예반을 스스로 찾게 만들었다. 미술반의 빠따는 문예반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었다. 들어가는 첫날부터 빠따가 시작되었다. 소위 '입반식'이다. 문예반은 소수정예여서 한학

년이 6명 내외다. 처음 들어온 신입생은 각 학년 선배들로부터 5대씩 돌아가면서 빠따를 맞아야 했다. 2학년 선배 6명이 5대씩이면 30대, 3학년 선배 30대를 합치면 도합 60대를 맞는 것이다. 이걸 줄빠따라는 것인데 군대에서 나온 풍습이다. 문예반에서는 기강과 규율을 엄하게 다루는 전통이 있었다. 글을 쓰는 사내자식들이 나약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말이 60대지 고등학생으로서 그정도 맞고 나면 엉덩이가 부어올라 자리에 앉지도 못한다. 입반식은 새내기를 환영한다는 뜻의 기념 빠따인 셈이지만 우리 수시로 그런 빠따를 맞아야 했다.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빠따가 있게 된다. 선배들의 눈치가 이상해지고 반장으로부터 빠따를 맞을 날이 정해지면 우리 그 준비를 해야 한다. 반실을 깨끗히 청소하고 조용히 앉아 기다린다. 선배들이 다 나타나면 반장이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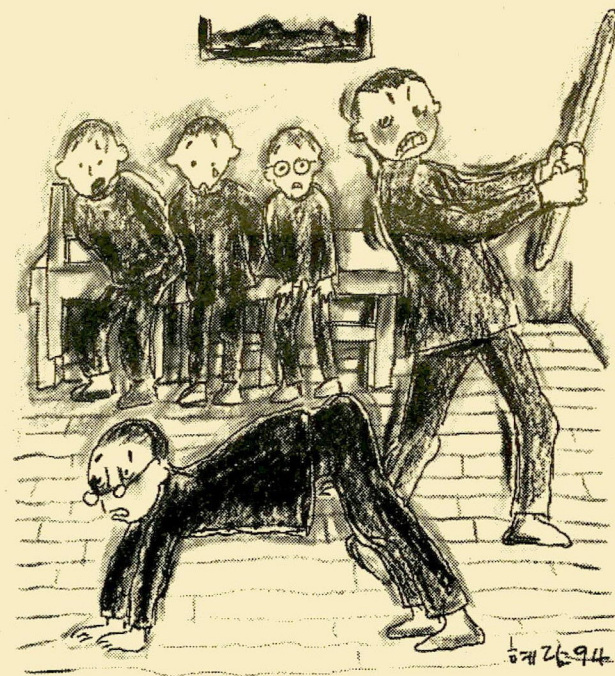
잘못을 훈계하기 시작한다. 이어 한명씩 나와서 빠따를 맞게 된다.

빠따를 맞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시원하다. 무엇을 잘못했든 간에 빠따를 맞음으로써 완전히 해소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빠따 맞는 날은 중국집 가는 날이다. 빠따식이 끝나면 선배들은 우리를 몰고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과 술을 사먹인다. 공짜로 밥과 술을 얻어먹으면서 우리는 돈독한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빠따를 때렸던 선배들이 그렇게 밋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사람들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때 겨우 1, 2년 차이로 그 선배들이 왜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였는지. 우리 마치 아버지, 아저씨들과 같이 앉아 있는 착각을 했다.

중국집의 회포풀기는 술이 얼굴에 오른 다음에 돌아가면서 노래부르기와 선배의 음담패설 듣기가 주메뉴였다. 우리 아픈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선

배의 농염한 음담패설을 들으면서 킬킬거렸다. 참으로 묘한 쾌감이었다. 선배들은 우리들을 때리면서 남자를 죽이고 음담패설을 한바탕하면서 이번엔 여자를 죽인다. 철저한 새디스트 근성이다. 게다가 우리는 맞으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마침내 회열을 느낀다. 우리는 매조키스트가 된 것이다. 이상한 감정의 연속이다.

2학년에 올라가면서 나는 선배들에게 맞으면서 후배들에게는 매를 대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선배들에게 그렇게 맞았으면서도 후배들에게는 매를 댈 수조차 없이 내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댈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가 내겐 있었다. 또한 매라는 것은 어쨌든 강제적인 수단이란 점이였다. 나는 선배 몰래 전통에 반항하기 시작했다. 줄빠따가 있는 날은 일을 핑계대고 몰래 빠져나와 후배들의 엉덩이에 나의 매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선배가 된 후 난 조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졸업한 선배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후배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래도 빠따를 때려야 합니까?”

선배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말했다.

“꼭 잘못해야 때리는 게 아니야. 그건 정규행사야. 계속 때리고 계속 맞아야 돼. 한달에 한번씩은 꼭 맞아야지.”

당시 그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조직이 강제된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율에

의해 움직여야만 된다는 믿음이 강했다. 난 선배의 말에 걸으론 수긍하면서도 속으론 거역했다. 지금도 내 믿음엔 변함이 없다. 졸업하는 날까지 한대의 매도 후배에게 대지 않았다. 선배들은 나를 싫어했다. 왜 빠따를 대지 않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를 저지하는 힘은 감소되어갔다. 나는 고참이 되어서 맘대로 문예반을 주물럭거릴 수 있었는데, 급기야는 전설처럼 내려오던 문예반 육각몽둥이를 분질러 버렸다.